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

순천문화도시센터 등 18개 단체 행사 개최 시민 주도 실천으로 생태문화도시 모델 구현



순천문화도시센터는 지난 5월 10시부터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울타리보호협회 등 18개 단체와 함께 일상 속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업동저수지 인근 ‘두꺼비 로드킬’ 문제가 이슈화 된 이후, ‘업동두꺼비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생태계의 공존’, ‘일상 속에서의 생태문화 실천’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과 시민 주도 생태문화도시 구현 모델을 제시 하였다.

새끼 두꺼비의 이동 시기가 5월 중순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종이 두꺼비 레이싱 ▲업동 두꺼비 책방 ▲두꺼비 우산 만들기 ▲두꺼비 집 만들기 ▲두꺼비 모양 비누 만들기 ▲두꺼비 생각하며 같이 그려요 등의 체험 프로그램들과 생태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두

꺼비를 아시나요 ▲두꺼비 올챙이 관찰 ▲두꺼비 지킴이가 되어줘요 ▲새끼두꺼비를 지켜라 ▲두꺼비 응원 메시지 리본달기 ▲노플라스틱 캠페인 등 총 12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순천문화예술과 신순옥 과장은 “일부 전문가나 행정의 아이디어와 기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과 많은 단체들, 순천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순천시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열린 토론의 단계를 거쳐 개최하게 된 행사이다.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일상 속 생태에 대한 관심이 문화적 합의과정을 거쳐 실천으로 발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문화도시센터는 매주 목요일 ‘문화도시 온라인 공유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내 실행그룹을 발굴하는 등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순천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ccultur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600개의 향기에 빠지다

보성600사업 추진율 90% 이상 달성...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보성군이 2021년 역점 추진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이하 ‘보성600사업’)이 추진율 90%를 넘기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보성600사업’이란 지난해부터 보성군 전체 600여개 자연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275개 마을이 참여한다. 5월 7일 기준으로 275개 마을 중 251개 마을이 추진을 완료하여 90%를 상회하는 사업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농사일로 바빠지는 5월 중순

이전에 남은 20 여개의 마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민회장과 이장단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마을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컨설팅하여 마을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SNS등을 통해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간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보성600사업은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남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역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라면서 “보성의 공동체 정신을 전국에 알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 달라”며 당부했다.

보성=김승호기자

광양시, 하수처리 자체평가 실시

중앙부처 평가 대비 선제 대응...우수팀 포상 등 혜택 부여

광양시는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조직 구성원의 자율경쟁 유도를 위한 자체평가를 매년 2회 실시한다.

시는 수질관리에 필요한 환경, 기

계, 전기분야별 숙련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5개 하·폐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 자체평가를 올해부터 5개 팀별로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자체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면 교육·홍보, 하수도 운영관리, 하수도 정책 등 3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처리시설별 운영·관리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상·하반기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팀 표창 수여 및 근무성적 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광양=심종섭기자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운영 시작

여수 야경·뮤지컬·버스킹 한 번에 즐기는 이색 시티투어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수밤바다를 누빈다.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야간테마코스 시티투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뮤지컬,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버스로, 11월 중순까지 여수밤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마법의 정령, 시간의 정령, 악기의 정령이 낭만버스에서 벌이는 사랑이 야기를 주제로 뮤지컬의 생생한 공연과 트럼펫 연주를 펼치는 낭만버스커의 공연은 관광객을 환상과 추억의 세계로 인도한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2시간 동안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와 같은 여수 대표 야경명소를 누빈다.

탐승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2만 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은 1만 원으로, 여수 시민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탐승객 인원 조정,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으로 탐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 운영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 및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2개 과정 개설

순천시에서는 최근 도시농업의 관심 증가 및 저변 확대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금번 개설된 교육 과정은 국가기술 자격증인 유기농업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 총 2개 과정으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인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추진된다.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도

시농업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도시농업 분야 최고의 국가인증 자격증이다.

따라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관련 자격증인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등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80시간 이상의 도시농업 전문 인력(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순천시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12회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정으로 총 25회 100시간에 걸쳐 10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2개 과정에 각각 2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도시농업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